지원대학 웹사이트·학과 리서치 등 사전 준비

▪인터뷰 잘하기

조기지원 원서를 제출하고 요즘 한참 인터뷰 스케줄이 잡혀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인터뷰는 대입지원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턴십이나 대학원 진학, 직장을 잡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서 준비를 해두면 요긴할 것이다. 인터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인터뷰어가 지원자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지원자의 성격이나 지원자가 왜 그 대학에 오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학 인터뷰를 위한 몇 가지 기본 가이드라인을 보자.

인터뷰는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인상 깊게 또한 긍정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의 한 12학년 여학생이 인터뷰 요령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자신감 갖고, 낙관적·진지함 나타내야
지나친 정장스타일보다 단정한 캐주얼

■의상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직장 인터뷰할 때와는 다르다. 대학생들은 항상 정장을 입지 않는다. 인터뷰어도 지원자가 정장을 입고 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스쿨을 지원한다면 아마 정장을 입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지원하는 대학이 매우 보수적이라면 정장을 입는 것도 좋겠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부는 날씨라면 긴팔 소매의 칼러가 있는 셔츠나, 스웨터도 좋을 것이다. 너무 낡고 빛바랜 옷을 입는 것은 삼갈 것. 바지 또한 너무 정장 스타일보다는 캐주얼해 보이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하자.

■시간 엄수

인터뷰 시간에 맞춰 나가라는 뜻은 30분 전쯤 일찍 나가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터뷰 시간이 늦어진다면 반드시 인터뷰어에게 전화나 텍스트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인터뷰 준비

▲리서치

인터뷰어들은 왜 네가 해당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최소한 지원 대학의 웹사이트 정도는 훑어보고 가도록 하자.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리서치는 하자. 그 대학에 없는 엉뚱한 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길 바란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프로파일 리뷰

•자신의 이력서와 지원서에 써넣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라.

•자신의 백그라운드에서 인터뷰어와 나눌 만한 것에 대해서 뽑아보자: 과외활동, 가장 좋아하는 과목,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분야, 자신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등.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만들어 준비해 보자: 너의 경험에서 배우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왜 너는 그것을 즐겨했는가?

경험을 통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대화의 일부분에서 인터뷰어가 "왜?"라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라. 질문에 대답할 때는 정중하고도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자신이 했던 활동 중에 "왜?"라는 대답에서 잘 모르겠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대답은 결코 하지 말기를….

▲인터뷰어에게 질문할 내용 준비

인터뷰어에게서 "나 한테 질문 있니?"라는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돌아올 것이다. 만약 아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터뷰어가 자신을 정말 준비를 안했거나 별로 지원 대학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캐털로그나 홍보책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다. 명심해라. 이것은 너 자신에게 주어진 지원 대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터뷰어에게 보여줄 또 하나의 자신의 이력서를 카피해서 가져가도록 한다.

▲올바른 인터뷰 태도

바른 태도와 행동은 너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터뷰어에게 너 자신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COPS다.

•자신감을 가져라: 지원대학이 자신의 능력에 닿지 않는 탑 명문대학일지라도 상관없다. 자신 있게 그리고 담담하게. 인터뷰어가 자신의 대학에 네가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너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일 때 너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낙관적이다. 너의 과거의 아카데믹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너의 배경을 만들어라. 그것들이 바로 너의 좋은 점들의 하이라이트를 만든다.

•열정을 보여라: 만약 인터뷰어가 너에게 가장 흥미롭고 관심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너의 흥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어들은 너의 행동하는 방식에서 무엇이 관심이 있고 무엇에 정말 흥미가 있어 하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성실함과 진지함: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꺼이 어떤 소재이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라. 인터뷰어에게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인터뷰어도 맘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정직해야 한다. 네가 가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네가 얼마나 네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진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인터뷰 내내 모든 경험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긍정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하라.

■고마움의 표시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어에게 반드시 정말 좋은 만남이었다고 좋은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악수도 힘 있게 나누자. 인터뷰어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넣은 이메일이나 카드를 보내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 대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인터뷰 도중에 조심해야할 점

•인터뷰 전에 입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껌을 씹었다면 인터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뱉어야 한다. 유행어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맹세를 너무 많이 하는 모습도 좋지 않다.

•거만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과 잘난 척하는 모습 사이에는 반드시 선이 있다.

•거짓말- 거짓말 했던 자신의 모습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

•지원 대학이 자신의 백업 스쿨이라거나 자신이 안전 지원한 대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인터뷰 장소에 부모를 동반하는 것(부모가 라이드를 해줬다면 밖에서 기다리시도록 하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에 대한 인상을 만든다. 아마 너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이기를 바랄 것이다.

인터뷰어가 너를 기억하는 이유가 약속시간에 너무 늦어서, 반바지를 입었거나 찢어진 진을 입어서 아니면 너무 진한 향수를 뿌려서 등이 아니기를 바란다.

■질문의 예:

•Tell me about yourself and your interests.(You should focus on about three things) Variation of this is: How would your friends describe you?

네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3가지 이내로 좁혀서 준비하자. 친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너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Why do you want to go to this college? What are your priorities in selecting a college? 왜 대학에 가고자 하는가?

•What do you plan to major in and why? 무슨 전공을 왜 택하였는가?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미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앞으로 5년 후의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

굿네이버스 필리핀 긴급구호!

피해 1천3백만명, 이재민 4백만명,
피해규모 150억 달러, 모든것을 쓸어간 재앙

사상 최악의 살인태풍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이웃을 도와주세요!

후원 신청:
877-499-9898

이메일) sponsorship@goodneighbors.org
웹사이트) www.goodneighbors.org
주소) P.O. Box 86755 | Los Angeles, CA 90086 USA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Good Neighbors USA**

굿네이버스는 피해 지역에서 4차례로 5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 후 추가적인 구호 및 재건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1999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지부를 설립하여 빈곤에 처해있는 가난한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총체적인 개발 활동들을 (교육, 소득 증대, 식량, 의료 및 건강)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매년 발생하는 태풍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UN 협력체계 구축 및 WFP 협력사업 진행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전문 긴급구호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건복구를 돕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긴급구호키트 구성품
(쌀 5KG / 생선통조림 2캔 / 식수 6L /
아동용 파우더우유 및 식수 / 고열량 비스켓)

굿네이버스는
총 8천 가구(5인 가족 기준 /15,000명)를
대상으로 4차례의 긴급구호키트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